

## 심정지로 쓰러진 환자 ‘첫 소생술 시행률’ 전남, 11.6% 불과

### 응급구조 연계 상급병원 절대 부족...국립의대 설립 절실 전남소방본부, 현실 감안 심정지 환자 소생률 높이기 온 힘

전남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환자를 처음으로 목격하고도 심폐소생술 시행법을 몰라 소중할 목숨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전남소방본부가 제공한 질병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기준 전남의 심정지 환자 최초 목격자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11.6%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 평균(29.2%)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이에 전남소방은 2022년 도내 심정지 환자 출동 1445건을 분석해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심정지 환자 소생률 향상을 위해 응급의료 기반 구축과 심폐소생술 교육 강화에 나서고 있다.

2020년부터 3년간 전남소방본부 구급대가 이송한 심정지 환자는 4005명에 평균 연령은 71.3세로 파악됐다. 전남의 65세 노인인구 비중이 25.5%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이다.

또 심정지 환자 소생률 향상을 위해선 구급대 응급조치 이후 병원과의 연계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야 하지만 전남은 응급의료 기반이 열악해 생명을 살리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2022년 응급의료 통계 연보를 분석한

결과 현재 전남 인구 10만 명당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는 1.5명에 불과했다. 전국 평균 4.5명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또 전남은 권역응급의료센터 1시간, 지역응급의료센터까지 30분 이내 도착이 불가능한 응급의료센터 취약지가 22개 시·군 중 17곳(77%)이나 된다.

이는 전남에 국립의과대학교 설립 등을 통한 응급의료 기반 구축과 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현재 국립의과대 등 응급의료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심정지 환자 최초 목격자의 심폐소생술 시행률 향상이다.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목격자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것은 환자의 생존 기회를 크게 높일 수 있고 환자에게 생명의 연결고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에 전남소방은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전남도민이 심폐소생술을 습득하고 활용하도록 올해부터 매일 셋째주 수요일을 ‘심폐소생술 교육의 날’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현재 관공서 등 82곳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의 날을 운영 중이며 더 많은 참여를 위해 학

교, 읍면동사무소 등 관공서와 대규모 산업단지, 도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섬 지역 등 응급의료 취약지역에는 구급대

를 확대 배치해 출동 시간을 단축하고, 노인 대상 맞춤형 심폐소생술 교육을 우선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홍영근 전남소방본부장은 “심폐소생술의 중

요성과 목격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홍보를 강화하고, 응급환자 신속 대응을 위한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희면기자



“뜨거운 이웃 사랑” 지역 돌봄세대에 연탄 전달

6일 광주 북구 중흥동 주택가에서 문인 북구청장과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자생단체 회원들이 지역 돌봄세대에 연탄 400장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광주 북구 제공)

### ‘국민주’ 소주 가격 줄줄이 인상...서민들 “술맛 안나네”

연말을 맞아 국민주인 소주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5일 보해양조에 따르면 지난 2년여 동안 동결해 왔던 일새주와 여수밤바다 등 소주 4개 제품의 출고가격을 지난 1일부터 6.9% 인상했다. 일새주 360ml는 1165.6원에서 1246.7원으로 인상했으며 일새주 200ml와 640ml도 각각 1026.19원에서 1097.68원, 2186.49에서 2338.52원으로 인상했다.

이에 앞서 하이진로도 지난달 참이슬 후레쉬와 오리지널의 출고가를 6.95%(80원) 인상했다.

전국주 소주 가격 인상에 이어 광주·전남 기반의 지역소주도 가격 인상 대열에 합류하면서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김수권기자

### 사흘 만에 또 H5형 항원 검출...전남도, AI 차단방역 강화

#### 일제검사 기간 단축·집중 소독주간 운영·일제점검 등 총력

전남도가 사흘 전 고흥 오리농장에 이어 6일 무안의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도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자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나섰다.

이날 오전 8시께 검출된 무안 오리농장 항원은 도축장으로 출하하기 위해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지난 2일 검사에선 모두 음성으로 나왔고 오리 폐사 증가나 특이 사항도 관찰되지 않았다.

최종 고병원성(H5N1형) 확진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 중이며 빠르면

오늘 오후 늦게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전남도는 무안 오리농장에서 항원이 검출되자 조동방역팀을 투입해 해당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 등 방역 조치를 했다.

현장에는 지원관을 파견해 주변 환경을 조사하고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오리 1만 6000마리와 500m내 양계농장의 닭 8만마리 등 9만6000마리를 선제적 살처분 했다.

또 항원 검출 농장으로부터 반경 10km를 방역대로 설정하고 이동제한 조치와 함께 소독차 9대를 동원해 인근 지역을 집중소독

하고 있다.

10km 방역대 내 가금류(닭·오리) 사육 규모는 오리 16농가·28만2400마리, 닭 31농가·217만4700마리로 파악됐다.

전남도는 고병원성 AI 확산 차단을 위해 비상 대응에 힘쓰고 있다.

감염축을 조기에 색출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전체 오리농장 219곳에 대해 당초 계획(11일)보다 3일 빠른 8일 일제 정밀검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21일까지 2주간 방역지역에 포함된 ‘무안·나주·영암군’에는 소독장비를 총동원해 농장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기로 했다.

여기에 12월 한 달간 농축산식품부 전 직원을 동원해 시·군 방역대책 추진상황과 영산강 인근 고위험 지역인 ‘나주·무안·함평·영암’ 가금농장에 대한 차단방역 이행실태 일제 점검에 나선다.

7일엔 가금 계열사 방역 회의를 열어 책임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계열 농장에 대해 보다 강도 높은 방역관리를 당부할 예정이다.

강효석 전남도 농축산식품부장은 “AI 확산 차단을 위해선 가금농장의 기본방역수칙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금농장에선 철새도래지 방문 금지, 농장 출입 통제·소독, 축사 출입 시 전용 장화 갈아신기, 폐사 증가 등 의심상 발견 시 가까운 가축방역기관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2023시즌이 막을 내렸습니다.  
전남을 지지하는 모든 분들의 관심과 응원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2024시즌 더욱 강해져서 돌아오겠습니다.

전남드래곤즈 프로축구단 일동